

“저녁 12시에 잠을 자면 새벽 1시 반에 꼭 깨어나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에 점심을 먹고 2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것까지 합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잠을 잘까요”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중앙갤러리 개관 기념 ‘남관, 창작 50년의 예술세계’ 전시회에서 1,200호짜리 대작을 선보여 73살의 나이와 상관없이 왕성한 창작욕을 과시한 남관(南寬) 화백. 그는 요즘 잠이 없어 고

은 머리, 그리고 커다란 눈이 마치 수도승을 연상케 하는 그는 종로구 부암동 산꼭대기 집에서 부인 김진옥 여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자신의 일에만 철저하게 살아온 두 부부, ‘성북동 비둘기’로 잘 알려진 시인 김광섭의 말말이기도 한 부인은 ‘그 한줄기 햇빛’ ‘나신(裸身)’ 등의 창작집을 발표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남달리 귀여해 주었다. 한국 학생만을 특별히 불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디스크를 틀어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했다.

별다른 동기없이 평범한 출발을 보인 다른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기만 한 그에게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처음으로 찾아준 사람도 바로 후에게 선생이었다.

천재만이 천재를 알아본다는 말

인물탐방

우리나라 최대의 캔버스화를 완성한

원로서양화가

南寬

아, 내 영혼은 아직도 파리의 지붕 밑을 떠돌고

우리나라보다는 파리에서 더 잘 알려진 서양화단의 노대가 남관(南寬) 화백. ‘남관이 파리에 있음으로 그의 조국이 빛난다’는 절찬까지 받았던 그는 73살의 나이도 아랑곳 없이 그 누구보다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왕성한 창작욕을 보여주고 있다.

글 ● 이광표 기자

사진 ● 이인선 기자

민이라고 털어놓는다.

우리나라에서 보다는 파리에서 더 잘 알려진 서양화단의 노대가. 롯데홀기로 유명한 파리의 평론가들조차 그를 가르켜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예술가’로 지칭하며 ‘남관이 파리에 있음으로 그의 조국이 빛난다’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던 화가. 중국의 자오 우찌, 일본의 스가이와 함께 현대미술계의 세계적인 동양인 작가로 꼽히는 남관 화백. 작은 기에 짧게 깎

그는 1911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났다. 이름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농사를 짓는 부농의 아들로 벨 어려움을 모르고 어린시절을 보냈다. 고향인 청송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던 무렵의 기억으로 73살의 그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후에게 끼라는 일본인 선생이다.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 선생을 하고 있던 그는 다른 일본인 선생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을

이 있듯이 후에게 선생은 유별나게 눈이 크고 양전하기만 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려내는 그림을 무심코 보아 넘기지 않았다.

“미술시간이면 마분지같은 그림 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화제를 보고 그림을 베껴 내기가 일쑤였는데 나는 학교앞으로 흐르는 강둑에 나가 버드나무를 그리거나 들 풍경을 그리곤 했습니다. 후에게 선생

이 칭찬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마냥 기분이 좋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자신 이 화가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결심도 없었다. 그런 그가 화가가 되어보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도 후에게 선생이 들려준 어느 일본 화가의 에피소드같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미술학교 학생이 뭇상을 지우기 위해 식빵

어주는데 자존심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미술학교 학생은 오히려 그녀의 호의를 오히려음을 사과하고 사실은 식빵을 먹기 위해서 사건 것이 아니라 뭇상을 지우기 위해 사건 것임을 설명해주었으며 두 사람은 그 사건을 계기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아직은 나이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유년시절에 들었던 이 이야기는 그에게 확실한 감동을 주었으며

게 된 종이위에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청송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는 화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 시키기 시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미술학교 진학의 자격을 얻기 위해 미술학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미술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노골적인 반대를



을 사러 빵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거의 날마다 식빵만을 사가는 이 미술학교 학생을 가난한 고학생으로 오해, 연민의 정을 느낀 빵집 딸이 하루는 식빵 대신 값비싼 안꼬빵을 봉지에 넣어주었다. 화실에 돌아와 봉지를 풀어본 학생은 식빵이 아닌 안꼬빵이 들어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길로 빵집을 찾아가 따졌다. 빵집 딸은 날마다 식빵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 고급스런 빵을 대신 넣

그때 들은 ‘예술가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지상명제같은 후에게 선생의 말은 훗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가난을 숙명처럼 껴안고 다니게 만들었다.

미술학원 다니는 것 알고 아버지 노골적으로 반대

아들은 그때부터 그는 취미와 막연한 목적의식으로 마분지나 못쓰

하고 나섰다. 그때만 해도 화가를 환쟁이라 부르던 시절이었으니 고지식한 아버지의 반대는 당연했다.

“그때 아버지가 존장을 맡고 있었으니 어떤 분인지 알만하지 않았습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곁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집안을 맡아주기를 바랐는데 환쟁이가 되겠다니 화를 낸 것도 당연했죠”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온 아

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아버지는 그를 방안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다. 아버지 앞에서는 땃상 연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바꿀 수가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관부연락선을 타고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버지를 설득시키기에 반대가 워낙 강경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

로 다이헤이요(태평양)미술학교본과에 입학, 본격적인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그와 함께 태평양 미술학교를 다녔던 화가로는 구본웅, 박득순, 손웅성, 최재덕, 송문섭, 김영교등이 있었다. 곱추화가인 구본웅은 일본에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었고 성악가 김자경의 남편이 된 심형구는 그때부터 개를 끌고 다니며 여유있고 멋있게 살고 있었다.

의 얼굴이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화실에 불박이장처럼 앉아 캔버스를 지워나갔다.

아, 또 밤을 새웠구나 기분 좋고 상쾌한 피로

학교에서 돌아와 한 번 화실에 틀어박히면 저녁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얗게 밤을 새웠다. 그

로는 기분 좋은 상쾌한 피로감이었다. 그의 이런 버릇은 훗날 파리에 가서도 계속 되었다.

태평양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는 동경의 가마오카 아카데미에 들어가 연구원이 되었으며 문전(일본의 국전, 해방후 일전으로 명칭이 바뀜)에 귀국할 때까지 3차례 입선되었다. 당시 그가 즐겨 그렸던 그림들은 인물. 문전에 입선한 작품들도

대와 홍익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작업을 계속, 동화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 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1954년, 6.25전쟁중 폭격을 맞아 폐진 유리창이 아직 다 갈아 끼워지지 않은 미도파백화점의 화랑을 빌려 열린 그의 개인전은 도불전으로 이 전시회에서 판매된 그림값으로 그는 비로소 오랫동안 동경해운 불란서 유학길에 올랐다. 1955년 3월

을 쫓습니다. 그리고 부산 피난지에서 어느날 수화를 만났는데 잘못이 있다며 내 손을 끌더군요”

피난지 부산에서 만난 건방진 여자 아이

당시 부산에는 많은 화가와 문인들이 피난을 와 있었다. 이중섭과 수화 김환기는 매일같이 금강 다방에서 만났고, 그도 금강 다방에 자주 출입을 했다. 이중섭은 늘 술을 마시고 와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고는 했었다. 김환기를 따라 간 곳은 어떤 출판 기념회였다. 그곳에서 그는 김광섭의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김환기와 함께 간 그 출판기념회가 바로 그녀의 번역시집 ‘자유의 나무’출판 기념회였다. 당시 이승만박사의 비서를 맡고 있던 김광섭은 서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딸이 번역해 낸 영미애국시들을 책으로 묶어내주면서 가까운 친구들 몇사람을 초대했던 것인데 그는 김환기에게 끌려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그때 두번째 왔는데 조금 건방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 4학년짜리가 무엇을 안다고 벌써 번역시집을 내느냐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955년 2월 한국을 떠난 그가 한달 이상을 배에서 시달리며 파리에 도착한 것이 다음달 22일이었다. 몽파르나스에 방을 얻고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엘에 등록을 했다. 20년 가까이 동경해운 파리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파리는 2차대전 이후



부인 김진옥여사와 함께.

‘여인상’, ‘노파’, ‘노인’등의 인물이었다.

1942년 후나오까상을 수상한 그는 이듬해인 1943년 미쓰이상을 수상했다. 이때 일본에서의 작품활동이 훗날 친일파로 몰려 우리나라도 아닌 파리에서 곤욕을 치르는 사건을 연출하기도 했다. 아물든 그 무렵 동경에서의 그의 작품 활동은 한국인으로서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며 세잔느에 심취해 불란서 유학을 꿈꾸기도 했으나 해방과 함께 좌절되고 10년후인 1955년 3월에야 이루어진다.

해방이 되고 귀국한 그는 숙명여

22일,한달이 넘게 배를 타고 겨우 파리에 도착한 그의 불란서 생활은 실로 뼈를 쥐고 살을 저미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동반자가 될 한 여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부인을 만게 된 경위를 알기위해 부산 피난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울에 있을 때 수화 김환기가 시인 김광섭의 딸이라며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소개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살 가까이 어린 학생이었으나 나도 잘 아는 친구의 딸이라 별 관심없이 한 번 더 봐주었

어떤 때는 밤을 새워 전등불밑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캔버스의 광선이 밝아질 때가 있었다. 새벽이 되어 창문이 밝아오고 따라서 캔버스위에 쏟아지는 광선이 밝아져 그림을 갑자기 부드럽게 해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밤을 새운 것을 깨달았다.

시키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버지의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묵인속에 어렵게 다시 일본으로 떠날 수 있었다. 미술학원을 졸업한 그는 소원대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처럼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자신이 화가가 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화난 아버지

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력이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 전등불 밑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캔버스의 광선이 밝아질 때가 있었다. 새벽이 되어 창문이 밝아오고 따라서 캔버스 위에 쏟아지는 광선도 밝아져 그림을 갑자기 부드럽게 해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아, 오늘 또 밤을 새웠구나 깨달았다. 팽팽한 긴장속에서 색팔과 테레핀 냄새에 취한 육신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나 그 피

“아버지는 그가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아들의 결심을 바꾸기 위해 방안에 가두고 매를 때리기도 했다.”

후의 폐허에서 추상미술의 황금기를 맞고 있었다. 캔버스위에 페인트를 통째로 컹는 식의 앙포르멜 운동을 비롯, 붓을 쓰지 않고 손바닥으로만 그린다고, 발바닥으로 짓는 것, 종이나 천을 조각내 붙이는 것, 형질을 붙여 대외 붙이는 것 등 모든 과잉망측한 방법이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작가가 지니고 있는 개성을 자기 나름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사양하지 않았으며 평론가들과 컬렉터들도 그들을 지지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예술은 오로지 '창조'라는 말을 '개성의 고집'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은 것도 이 시절의 평론가와 컬렉터들이었다.

20년간 동경해온 파리생활 송금 끊기자 막다른 골목

오전에는 아카데미드 라 그랑드 쇼미엘에 나가 습작을 하고 오후에는 루브르박물관과 현대미술관 화랑 등에서 열리는 전람회를 보고 다녔다.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사고에 경직되어 있던 그에게 파리의 새로운 풍물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생활 습관이나 사고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예술세계에서 접하게 된 새로운 방법들은 숨을 막히게 했다. 그리고 그 질식할 것 같은 충격은 자신의 내부 깊숙한 곳에 두터운 외피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던 재질을 일깨워 싹을 틔우는 촉매 역할을 했다.

"당시 주간지 ARTS에서 조사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파리를 갈망해 모여든 외국화가들이 자그마치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저마다 꿈을 가지고 모여든 그들은 많은 화가들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 매달 이자를 보내달라며 말긴 돈을 사기당한 그의 파리생활은 처음부터 절망이었다.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는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다●

없었습니다. 이국에서의 고독함이라든가 고국에 대한 향수같은 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파리 생활은 얼마가지 않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고국에서 보내오기로 한 돈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을 떠나올 때 미도파 화랑에서 가진 도불전람회의 수익금을 노기

원을 많이 해주어 약 5천불 정도 되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돈은 오지 않았다. 한국을 떠나올 때 노기남 주교와 송인상씨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었는데... 아무리 편지를 보내봐도 답장조차 없었다. 난감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그는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을 맛보았다. 어



두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반자 부부



남 주교의 보증으로 한영방직 사장인 김규성에게 말기고 매달 이자를 보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후에 처음으로 도불을 한다고 재계에서 후

멸제 할 수 없는 절망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이 당한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일본에서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소위 일본인들이 말한 대동아전쟁이 끝난 무렵 B29의 폭탄 폭격이 바로 내 옆에서 천지들이 폭사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인생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의 길을 피하려고 몸부림

치는 사이에 속아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몽파르나스의 뒷골목인 제에테가로 방을 옮겼다. 2차세계대전 전에는 유흥가로 불리웠던 제에테가에 새로 연은 2층 방은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둡침침했다. 화려한 파리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베뉴에서 본 파리고 '수·러·시엘·드·파리(파리의 지붕 밑)'은 그렇지도 않



았다. 파리의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은 돈없는 화가, 외국유학생, 수입이 적은 외국인, 그리고 화류계 여자들이었다.

그방에 틀어박혀 밤낮을 모르고 그림만을 그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한꺼번에 사놓은 그림 재료들을 다 써버린 후에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럴 수 있는데까지는 그러보자고 생각했다. 먹을 것조차 없는 절대절명

의 순간에 그는 일을 하는 것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5월 어느날 일을 보러 우리나라 대사관에 들른 그에게 조원석 공사가 몇가지 한국신문들을 내놓으며 '이런 수 있느냐'고 화를 냈다.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그에게 조원석 공사는 신문들 건네주며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다.

"그 사건이 일본인 국제사건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니 나와 김홍수씨가 파리에서 일본국적을 써서 작품을 전람회 출품했다며 정부 대변인은 우리들을 즉시 소환하겠다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합신문의 기사가 좋지 않았는데 나를 그린 만화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누가 모략을 해서 만든 기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한 때 한국화단을 떠돌며하게 만들었던 남편의 일본인 국제사건은 그의 작품 출품 경위를 알아보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모략임이 분명했다. 당시 문제가 된 전시는 파리가 관리하는 미술관 프레 팔레에서 열린 재봉외국인작가전. 주최자인 벨기에와 프랑스 문화협회는 우리나라 공관을 통해 재봉한국인 작가의 출품을 요청했고, 당시 재봉한국인 화가로는 김홍수와 그밖에 없었으므로 두사람이 각각 한점씩 공관을 통해 작품을 출품했다. 그때 출품한 그의 작품은 '고향의 노인들', 김홍수의 출품작은 '한홍풍경'이었다. 작품이 개성적이라고 해서 호평을 받았던 전람회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꿈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기사가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일본인 국제사건은 경제적으로

절망하고 있던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를 지탱해주던 그림에 대한 확신까지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싸디 쌀 포도주에 취해 파리를 해했다. 40이 넘는 나이에도 벼룩까지 파고는 외로움을 어쩔 수 없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절망으로 파리의 지붕 밑을 방황하던 그 무렵의 그에게 두 사람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파리에 들른 노기남 주교와 석천 오종식 선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건을 숙명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선생의 말과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노기남 주교의 위로의 말은 나에게 큰 위도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재료도 못사고 땅바닥에다 그림 그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래 잊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 당시 누군가가 그에게 왜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으면 그는 서슴치 않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다. 처음 사온 재료들이 다 떨어져고 나자 그는 아무 종이에도 다치는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없는 날은 땅바닥에 그리기도 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끄러움과 일본인 국제사건으로 인한 불신으로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들겨도 절대 열어

●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던 그에게 일본국적사건은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값싼 포도주에 취해 그는 파리의 거리를 헤맸다●

주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자제중에 빠져 오직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몰두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전등을 켜놓고 한 번 캔버스에 잡으면 꼬박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다. 열방에서 사는 지하철 노동자 부부가 적당에 나가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느라 접시를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비로 새벽 5시라는 것을 깨닫고는 했다. 공복을 갹한 포도주와 빵, 그리고 후로마아쥬(치이즈)로 배우고 물감 투성이인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가난한 사람에겐 파리의 하늘 밑에

을 겁니다. 한국에서의 아무것도 아닌 내 위치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을 나 자신에게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면유지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층 더 곤란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1958년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명승 부사가 되었다.

“그 무렵 내가 통금을 털어놓고 만난 사람은 단 한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홍사건(洪思健)이라는 고학생이었는데 서

이방인으로 온갖 경제적 역경과 정신적 시련을 이겨낸 그는 파리에 온지 3년만인 1958년 한국화가로서는 처음으로 살롱 드 메(salon de mai)에 초대되어 출품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살롱 드 메는 2차대전 때 독일군 점령하의 파리에 있는 조그만 카페 지하실에서 결성된 레지스탕스 작가들의 모임으로 종전 직후부터 새로운 경향의 화가와 조각가들을 초대함으로써 유럽에서는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단체.

살롱 드 메에 초대됨으로 그는 비로소 파리 화단에 화려하게 데뷔를 한

그림을 화상들이 취급해준다고 해서 경제적 곤란이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계속되는 역경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많은 위안을 받으며 한층 더 맹렬하게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그가 하고자 했던 동양적, 혹은 한국적인 것에 대한 모색도 확실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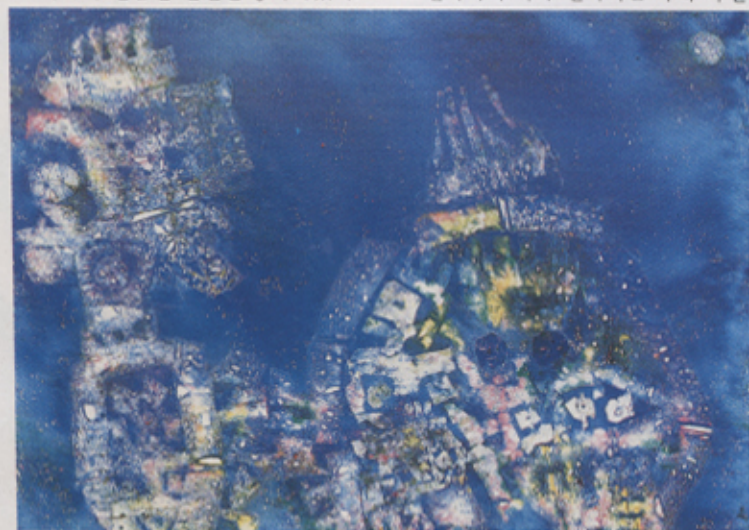
그러나 이 무렵 그는 또한번 슬픔을 맛봐야 했다. 외로운 파리의 한 지붕 밑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불어주었던 단 한사람의 고국 친구 홍사건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화가는 아니었지만 어느 예술가 못지 않게 파리를 사랑했던 친구, 하루에 한두번씩 화실에 들 때마다 커피를 밥먹듯 하는 그에게 우유를 사다주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은 차라리 슬픔이 아니라 충격이었으며 그는 그때처럼 슬퍼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이듬해 두번째로 살롱 드 메에 초대받아 출품을 한 뒤부터는 그런대로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를 잃어버린 어두운 추억과 뼈아픈 기억들만 혼란처럼 잔존하고 있는 뒷골목을 떠나기로 결심, 이사를 했다. 이제 그는 재료를 걱정하지 않고 좀더 넓은 장소에서 그림만 열심히 그리면 되었다. 파리의 몽트와르 타워 미술관, 플러어브, 프리케, 너어빌 화랑의 초대전을 비롯, 뉴욕, 록셈부르크, 런던, 함부르크 등지의 각종 전람회에 초대되어 출품하므로 전후 파리 화단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사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1966년 망통국제회화비에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는 유럽 화단

에서 그의 확고한 작가적 위치를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화단 보다는 유럽에 그 이름이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 무렵 그는 김광섭의 딸을 파리의 돌다방에서 다시 만났다. 3번째의 만남인 셈이었다. 서울대학을 거쳐 미국의 원취대학과 미시간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영국으로 건너가 리이즈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파리에 관광을 왔던 참이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림을 통해 동서양을 융합하는 예술가로 평가받는 그의 최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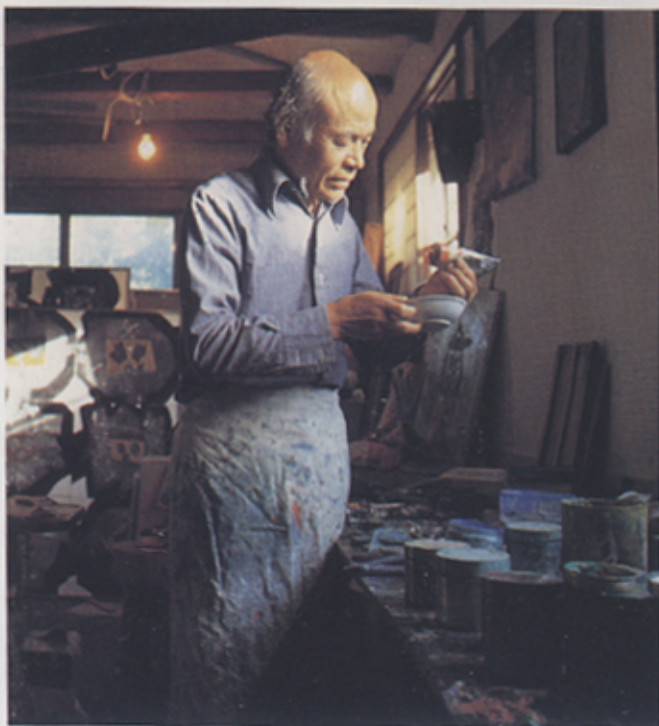
부산 피난지에서의 출판기념회 이후 거의 15년만에 만나는 그녀는 아직도 결혼을 않고 있었다. 오랫동안의 객지생활에 지칠대로 지쳐 있던 두 사람은 20년이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결혼식을 올렸다.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 시청인에 있는 해마미스 식당에서 올린 들의 결혼식에는 BBC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의 친구 코지나 부부가 증인 겸 하객으로 참석,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주었다. 외로운 결혼식이었지만 파리에 돌아와 신방

을 차린 둘은 마냥 행복했다. 파리 제4지구 세느강변의 프랑스 정부가 관리하는 예술인촌으로 이사를 한 그는 이제 작품을 팔아 생활을 할 만큼 충분히 유명해졌으며 여기 저기 전시회에 초대된 작품을 제작하는데만도 시간이 모자랐다.

1968년 그는 파리에 간지 13년만에 세계 미술계의 정상에 오른 위대한 화가가 되어 귀국했다. 이듬해 그동안 파리에의 활동을 정리한 국립공보판에서의 귀국 전시회는 국내 화단

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그는 파리와 서울을 왕래하며 활발한 작업을 해왔다. 귀국해서부터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홍익대학교수로 재직했던 10년 동안에 가장 험악하게 시간을 보낸 인생의 낭비였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73살의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성한 창작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가장 훌륭한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가 현대미술의 세계적 대가 그룹에 끼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국내에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그것은 타협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그의 대쪽같은 성격과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오로지 예술을 한다는 데 두고 있는 생활 태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부인 김진옥여사는 요즘 장편소설을 쓰고중에 있다.

서도 겨울이 건디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겨울이 되면 방안이 습기로 온통 축축했다. 벽에서는 물이 흐르고 이불속도 축축했다. 그런 방에서 잠을 자고나면 얼굴도 붓고 몸도 퐁퐁부어 혈행하던 속옷이 꼭 끼이기 일쑤였다. 머리를 빗으면 머리칼이 한웅큼씩 빠지기도 했다.

“그 당시 내가 만일 20대의 미술학도였다라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다못해 요리집에 가서 접시를 닦아주면서라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

을대 물리대 불문과를 나와 파리대학 시앙스보(정치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다. 그는 하루에 한두번씩 꼭 내 화실을 찾아왔는데 정신적인 위로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안은 온통 습기로 가득차 벽에는 물이 흐르고 이불도 축축했다. 자고나면 몸이 퐁퐁 붓고 머리칼이 한웅큼씩 빠졌다.”

셈이었다. 그후부터 그의 작품은 자신도 모르게 화상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그의 작품을 취급하고 싶다는 서신과 함께 실제로 몇군데서 그의 그림을 취급해주시기 시작했다.

“오랫동안의 외로운 파리 생활에서 만난 그녀는 그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다. 20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두 사람은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